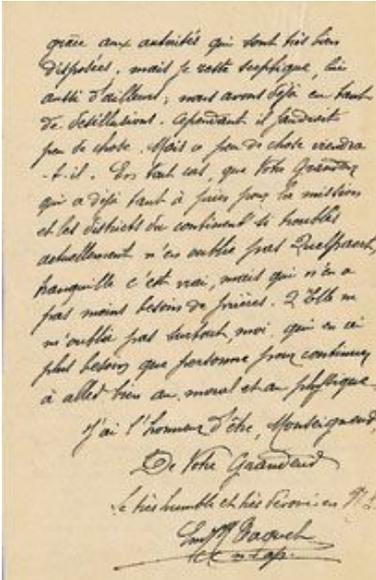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4>]식물채집 · 서양전파 '친필편지'에 남겨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02.04. 00:01:00



제1부 제주식물 세계화 100년 3. 세계가 놀랐다-타케의 서한(중)

타케는 제주에 재임할 때 조선교구장이던 뮌텔주교에게 여러 통의 서한을 보낸다. 이 서한은 타케를 비롯한 당시 성직자들의 복음 등 일종의 활동보고서이다. 타케는 이 서한에서 식물 채집과 전파 과정, 채집한 식물을 팔아 건물을 짓는 등의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적어 주교에게 보고하고 있다. 타케가 보낸 18통의 서한 중 식물과 관련된 내용은 3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물채집과 이를 서양에 전파하는 내용은 1908년 1월 6일자로 '홍로'(烘爐, 당시 남제주군 서귀읍 서흥리로 지금의 서귀포시 서흥동과 동흥동)에서 보낸 서한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본보는 최근 타케의 친필서한 원본을 입수했다.

“주교님께서 떠나신 후(뮌텔 주교는 1907년 8월 10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한다) 저는 곧 여러가지 식물을 거두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들이 집안에 가득한 데 요즘도 저는 추위와 북풍에 잘 견뎌낸, 제게 없는 식물들을 몇 가지 여기저기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도 두 송이의 십자화(十字花)와 두 송이의 성상화(星狀花)를 건조통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우 몰두하고 있는 것은 그것들을 분류하는 일인데 '포리' 신부의 식물도감 덕분에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타케의 제주도 식물 채집은 1907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서한에 등장하는 '포리'(Faurie R. P, 1847~1915) 신부는 역시 프랑스 출신으로서 일본 아오모리에 주재하던 성직자이자 유명한 식물학자였다. 타케와 함께 제주도 식물 조사와 채집에 몰두했으며 타케에게는 선배 선교사이자 식물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작고한 식물학자 이창복 박사는 '프랑스 선교사의 한국식물연구'에서 “포리가 한국의 식물 채집을 위해 몇 차례 입국하는데 1907년 세 번째로 한국에 와 그해 5월 목포를 거쳐 제주에 도착한 후 10월까지 타케 신부와 함께 제주도의 식물을 채집”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일본 식물학자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 1882~1952)은 제주에 오기 전인 1911년에 아오모리의 포리 신부 집에 35일간 머물면서 이 채집품을 감정했는데, 그 양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카이는 포리 뿐만 아니라 1913년 제주에 처음 오자마자 타케를 찾아 채집품을 감정했다. 나카이는 1914년 제주도 식물상을 처음 집대성하는 등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물연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타케는 서귀포에 거주하는 동안 많은 분량의 제주도 식물을 채집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북대

선병윤 교수는 “나카이는 1913년에 제주도를 방문해 타케 신부 집을 찾아가 열흘동안이나 이 채집품을 감정하였다”고 말했다.

식물채집에 대한 타케의 열정도 그의 서한에 묻어난다.

“제게는 약 50종의 식물밖에 없는데 어느 과(科)에 정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종(種)은 문제가 다릅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으려면 몇 년 동안의 연구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포리 신부 자신도 항상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거의 가을 식물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한 달 후에는 철 이른 식물들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할 것이고 제가 거의 예비 작업밖에 하지 못했던 지난해보다는 좀 더 조직적으로 1년 내내 식물들을 거둔다면 1천5백 내지 2천종류의 식물이나 적어도 잎사귀만이라도 갖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포리 신부가 지난 봄에 거둔 것들의 표본을 제게 보내 주었으니 제 것들을 분류하는 것은 쉬울 것 같습니다. 1년 후에는 저 혼자서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때엔 이끼와 지의도 채집해야지요.”

이 서한에는 그가 채집해 표본으로 만든 제주도의 식물이 서양에 전파되는 과정도 생생하다.

“라크루신부가 빌모랭(Vilmorin)에게 보낼 나무와 소관목의 씨앗 220종류가 들어 있는 우편 소포를 가져 갈 것입니다. 제게는 미국에 있는.....대학의 사전트(Sargent)교수에게 보낼 것도 그만큼 남아 있는데 주소를 잊어버려 나중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편지에 등장하는 라크루(Lacrouts, 1871~1929)는 1900년부터 1915년까지 천주교 제주 본당의 2대 주임으로 활동했던 신부다. 1909년 10월에는 초등교육기관인 신성여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 서한을 통해 라크루신부가 타케의 채집품을 유럽에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1908년 9월 24일자 서한에서는 “지난해 거두어들이는 풀들을 정리하자니 일이 많다”고 적고 있다.

타케는 제주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동안 포교와 성당을 짓는 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비용을 대는데 그가 채집한 표본이 요긴하게 쓰였다.

그 기록이 1910년 9월 1일자 서한에 나타난다. “...제 집 뒤에 있는 집을 사서 헐고 그곳에 사랑채를 지었습니다. 집은 완성되었지만 소성당(小聖堂)의 양쪽 끝 두 칸과 마찬가지로 개조를 해야 합니다. 앞쪽에 마루, 제의실, 제단 등등. 얼마간의 풀을 팔게 되면 한동안 수리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진설명]타케신부가 1908년 1월 직접 작성해 당시 조선교구장으로 있던 뮌텔주교 앞으로 보낸 친필편지. 이 편지에는 식물조사와 채집, 서양에 보내는 과정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 사진은 한국교회사연구소 제공.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